

회 요 세 평



김명화 교육학 박사·작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폭포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얼털털 소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통 같은 앞다리 동 아같은 뒷발로 양 귀 찌어지고 쇠나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흘리며 주홍 입 짝 벌리고 ‘워리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던 듯 자래 정신없이 목을 움추리고 가만이 었졌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인 수궁가에서 짐승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들이 서로 자리 자랑하는 내용 중 호랑이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숲속 골짜기에서 나오는 대목을 재해석한 판소리 노래 및 춤으로 이날치 밴드가 부른 노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영상으로 판소리를 현대화 시킨 노래로 노래와 춤이 독특해 이슈가 되었다. 색동옷으로 만든 의상을 입고 호랑이의 모습처럼 움직이는 춤사위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이날치 밴드와 엠비규어스댄스퍼니의 퍼포먼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독창적인 리듬으로 관심을 끌었다.

호랑이 기운으로 경제 활력

2022년 우리는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겪은 호랑이가 용맹스럽게 헤쳐 나가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났으면 한다. 코로나시기에 범이 내려와 주홍 입 짝 벌려 코로나를 물어갔으면 한다. 임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가정경제, 마을경제가 꽃피길 바라본다. 호랑이는 우리의 민담, 설화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 팔죽할멈과 호랑이, 해님 달님, 호랑이와 꽃감, 은혜 깊은 호랑이 등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한다. 이만큼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호랑이는

민화 속에서는 익살스런 표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는 무섭고 사나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동물과 함께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 옛 그림이 쉬워지는 미술책을 보면,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부터 백호가 등장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에는 호랑이가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여겼으며, 조선시대에도 궁에서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모시는 빈전에 사신도 안에 흰 호랑이를 그린 백호도’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호랑이는 늘 함께였다.

단원 김홍도의 송하 맹호도를 보면 제왕다운 포스가 그대로 느껴진다. 당당한 몸집, 한 번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눈빛, 살랑거리는 꼬리의 움직임이 보더라도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호랑이는 김홍도가, 소나무는 김홍도의 벗이었던 김홍도가, 소나무 아래를 유유자작 걸어가는 호랑이를 보면 코로나도 물리칠 것 같다. ‘호랑이와 까치’ 민화는 길상화다. 호랑이는 소나무 아래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고 까치 한 마리가 고목 나무에 앉아 있다. 예로부터 까치가 울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온다고 한다. 또한 호랑이는 잡귀를 맞아주는 영물로 믿어 왔다. 호랑이와 까치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인데 민화 속에서는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조상의 재치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호작도(虎鸞圖)라고 불리는 까치와 호랑이 그림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의미가 들어 있어 연초에 서로 ‘잘 되십시오.’라고 덕담을 나누며 주고받았다고 한다.

용맹하게 코로나 헤쳐가길

범이 내려왔다. 무섭지만 익살스럽고 좋은 길운을 안내해 주는 임인년 호랑의 기운을 받아 영치가 영차 당겨주고 밀어 주며 경제가 꽃 피웠으면 한다. 옛말에 ‘호랑이가 물어갔어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지만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한다. 우리는 삶의 자락을 넘어섬서 시련의 시간을 건너 2022년 임인년에 마주 썼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좋은 소식과 함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코로나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대한 민국에 범이 내려왔다.



이병철의 일찌골프 (36)

우리는 리듬하면 흥을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이다. 흥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깨우는 감정이다. 음악에서 리듬이란 음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 될 때의 규칙적인 흐름을 이른다.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한 게 있어야 리듬이 생긴다. 흥이 있어야 리듬을 잘 탄다. 골프 스윙에서도 리듬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흐름이 있을 때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게 굴러가고 좋은 여운을 남긴다. 리듬의 어원은 ‘르hythmos’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리듬모스(rhythmos)’다. 리듬은 ‘운동의 질서’라고 보는데 골프 스윙에서 스코어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다. 리듬은 운동·시간·공간에 관계하며 골프 스윙에서는 타격의 세기다. 무엇보다도 동작과 동작 상호간의 균형에서 만족스러운 질서를 의미한다. 리듬은 골프 스

흥을 깨우쳐 주는 리듬



윙 중에 동일한 요소와 구조의 규칙적 반복을 뜻한다. 이처럼 리듬은 골프 스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어드레스 자세에서 클럽을 들어올릴 때와 내릴 때의 일정한 흐름이다. 리듬은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스윙의 동작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나타난 반복의 발생으로 시작된다. 리듬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의식적인 동작이다. 또한 리듬은 지속적으로 연장된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어져야 하고 빠르거나 서서히, 그리고 강하게나 약하게 등 지속 속의 흐름이다. 다음은 배열이다. 7단계 스윙동작이 배열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골프 스윙에서 리듬은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연 속에서 어울어지는 공간 모두를 배경으로 삼아 일정한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 지도자들은 스윙은 천천히에서 빠르게 하라고 주문한다. 백스윙은 천천히 하고 다운스윙은 빠르게라고 주문하는 것은 스윙의 불분음이다. 핵심은 임팩트시 헤드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처방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비거너들은 전체적으로 빠른 스윙을 생각하여 의지와는 다르게 다운스윙보다 빠른 백스윙을 하게 된다. 백스윙이 빠르면 다운스윙은 더 빠르게 하여야 하는데 빠른 스윙에서 더 빠른 스윙을 하기에는 비거너 골퍼의 신체적 조건에서는 매우 어려운 주문이다. 투어 프로들의 스윙은 전체적으로 빠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운스윙의 스피드가 매우 빠르지만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리듬을 잘 타고 있는 것이다. 골프 스윙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골퍼들은 신체, 성격, 나이, 구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골퍼마다 스윙의 리듬이 달라진다. 경쟁과 스코어를 지켜야 하는 게임 속에서 깃누르는 스윙의 부담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윙 리듬은 쉽지 않다. 성격이 급한 사람과 느린 사람 모두가 무조건 힘을 빼고 스윙의 리듬을 지키려는 주문은 골퍼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초보골퍼인 경우에는 어깨와 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스윙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헤드업에 신경 쓰느라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백스윙을 느리게 하다 보면 다운스윙 할 때의 리듬이 깨져 뒤땅이나 탑핑이 나는 경우가 많다. 골프 스윙에서는 골프 스윙은 클럽으로 공을 일관성 있게 치기 위한 일정한 형태를 뜻한다. 일관된 스윙은 자신의 몸과 스윙에 맞는 리듬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골프학회부회장·체육학박사

특 지 광 장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 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이 제한을 두고 있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

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증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증간소음을 시발점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주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단순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현장에서 행위자에 대해 제지, 경고 등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고 급박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신고 이력이나 응급조치, 잠정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재신고 시 신고이력, 수사자료로 활용해 유지자, 교도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 4호 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주에 대한 유형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contact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姜靑秀. Includes phone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인사권 독립,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기 지 수 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부터 광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제출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의장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우려되고 있다.



최환준 사회부 차장대우

특히 의회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머물러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의회 의장에 집중되는 인사권을 두고 줄세우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의회직희망자와 의회업무 기피자로 분류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또 지방자치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한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부터 광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제출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의장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우려되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